

예비자 교리 교안 9 (1 월 14 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1. 예수님이 돌아가신(죽으신) 이유?

- ◆ 수님 십자가에 붙여진 공식 죄명은 '다인의 왕' 즉 백성들을 선동한 정치범으로 사형되심. 십자가형은 로마시대 최고극형으로 반란죄나 살인죄 등의 죄인들에게 구형됨.
- ◆ 공식적인 사형연도는 이렇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교와 예수님의 가르침간의 갈등이 주원인 -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신앙전통에 대한 과격한 비판, 성전 장사치와 같이 종교적인 대중의 열정에 기생하며 사는 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사제와 레위인, 율법학자, 바리사이인들에 대한 도발 행위, 안식일, 단식, 정결례 규정 등의 위반과 독특한 율법이해, 율법을 모르는 천한 민중과의 교류, 율법 위반자들과의 파렴치한 친교행위, 지배층에 대한 비판 등
- ◆ 결론적으로 기존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여 자신의 추종자들로 만든 정치적 반역자

2.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또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 23)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생활에서 주어지는 각종 의무와 고통들을 상징하기도 하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필리 2, 8)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함을 의미한다.

3.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의 희생 제사이다.

- ◆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표현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 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파스카 때 이스라엘의 속량을 상징하던 파스카 어린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오신 그분의 사명을 표현한다.
-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통해서 인류의 결정적인 속량을 완성하는 파스카의 희생 제사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의 희생 제사이다. 신약의 이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성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1 코린 15,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기”(1 요한 4,10)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다”(2 코린 5,19).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 22,19).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8).

4. 예수님의 수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십자가의 길, 십자가고상 등

예수님의 수난공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희생의 정신을 본받자! 라는 의미.

‘제사는 희생물 없이 바쳐지지 않는다.’ = ‘구원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